

순창군 '섬진강 책방의 기적'

섬진강서 진행 독서캠프, 이달 23~25·내달 8~10 2박 3일 일정 2회 진행
참가비 무료... 웰컴파티·센터감수성교육·6가지 테마책방 등 다양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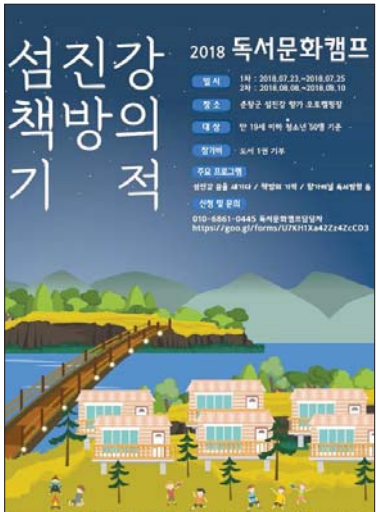
순창의 아름다운 섬진강변에서 책과 함께 문화를 만나는 '섬진강 독서문화캠프'가 오는 7월과 8월 2박 3일 일정으로 2회 진행된다.

특히 이번 캠프는 강연위주의 기존 인문프로 그램에서 탈피해 현장속의 인문학,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새로운 형태의 참여형 독서문화를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순창군립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년도 독서문화 캠프'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며 전국의 청소년 100명과 향가오토캠핑장을 찾는 관광객 등이 함께 참여한다.

1차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50명 인원을 넘어 마감됐다. 현재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2차 프로그램 참여자를 접수 중이며 전국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접수는 독서문화캠프(담당자 전화 010-6861-0445)에서 진행 중이다.

'세상을 읽고 나를 쓰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진강 향가오토캠핑장내 방갈로에 꿈, 환경, 친구, 우리 동네, 공동체, 문화, 예술이라는 6개



의 테마로 체험형 책방을 만들고 작가들이 상주해 참여자들과 함께 독서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독서 캠프 후에는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해 참가자들이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고 참가자들끼리 소통을 이어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웰컴파티 ▲센터감수성교육 ▲6가지 테마책방 ▲아침독서산책 ▲지역작가 북콘서트 ▲심야 공연·장기자랑 ▲향가터널독서탐험 ▲페이퍼파티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대신 자신이 추천하는 도서 1권을 기증하면 신간도서 2권과 아이돌 그룹 JYJ 앨범을 교환해 주는 푸짐한 경품도 마련되어 참가 청소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허관욱 군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책을 읽고 토론도 하면서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작은 책방의 기적이 이루어 질 것이다."면서 "순창과 도시를 잇는 이번 캠프가 순창군의 관광자원 홍보는 물론 숙박 등 부가 가치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창=이원영 기자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와 중국 허북지질대학이 공동 주최한 예술작품교류전이 8일까지 중국 허북성 허북미술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원광대와 중국 허북지질대, 예술작품교류전 성료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와 중국 허북지질대학이 공동 주최한 예술작품교류전이 8일까지 중국 허북성 허북미술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4일 진행된 개막식에는 원광대 정정권 교학부총장과 조형예술디자인대학 교수, 허북지질대학 교직원 및 학생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원광대와 중국 허북지질대 합작학과 공동운영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제1회 예술작품교류전에는 원광대 조형예술디자인대학 교수 및 강사 58명의 작품 80점과 허북지질대 예술디자인대학 교수 43명의 작품 100점을 등 총 180점이 전시됐으며, 서예, 회화, 공예, 디

자인, 귀금속보석 등 예술 영역이 총망라됐다. 허북지질대 왕봉명 총장은 개막식 축사에서 "예술작품교류전을 통해 양교의 우수한 예술적 가치와 능력을 입증했다"며, "예술창작 탐구와 연구는 앞으로 양교 교류협력의 초석이 되고, 전시회를 통해 공동 번영과 발전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원광대 정정권 교학부총장은 "작품교류전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양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이러한 교류협력이 양교 발전은 물론 한중 양국의 우호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량 이 되길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무대에서 보는 성철과 금님의 사랑

연극 '장수상회' 내일 무주예체문화관서 원로배우 신구·손숙 등 출연

무주군은 내일 저녁 7시 30분 무주예체문화관 대강당 무대에 연극 '장수상회'를 올린다고 밝혔다. 원로배우 신구와 손숙을 비롯해 이원재, 윤영민, 이아영, 김태향, 구옥분 등 연기와 배우들이 열연하는 연극 '장수상회'는 까칠한 노인사 김성철과 소녀 감성의 꽃집 여인 임금님의 가슴 따뜻한 사랑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강제규 감독의 영화 '장수상회'를 연극으로 재탄생시켜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청 김정미 문화예술 담당은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일상 속에서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무주에서는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무대를 마련한 만큼 많이들 오셔서 명품 배우들이 전하는 가슴 뭉클한 감동을 다 같이 느껴보시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주민들은 "포스터가 붙어 있길래 보고 굉장히 반가웠다"라며 "영화로 보고 감동을 받았었는데 신구와 손숙 씨가 연극으로 되살린 성철과 금님의 사랑이 어떨지 정말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연극 '장수상회'는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문화원과 유)장수상회문전사가 공동 주관하며 선착순 무료입장으로 진행된다. 관련 문의는 무주문화원(063-324-1300)으로 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24기 남고학당이 8월 6일부터 8일까지 북면 남고서원(북면 보림리 관동마을)에서 운영된다.

남고서원, '여름방학 남고학당 예절학교' 운영

20일까지 북면사무소에 접수... 내달 6일부터 시작

제24기 남고학당이 8월 6일부터 8일까지 북면 남고서원(북면 보림리 관동마을)에서 운영된다.

북면사무소와 남고서원이 주관하는 예절학교 참가 대상은 전국 초등학생(3학년~6학년)이다. 예절학교에서는 예절교육과 서예, 다도, 배례, 공예체험, 택견 등 다양한 체험 위주의 전통문화 예절교육을 진행한다.

관련해 면은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희망자는 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화로 신청(☎063.539-7094)하면 된다.

산세가 수려한 칠보산 자락에 위치한 남고서원(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76호)은 1577년

(선조 10년)에 창건됐다. 성리학자 일제 이항이 후진을 양성하던 학문의 요람으로,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김천일 장군을 비롯 조선왕조실록을 전수사고에서 내장산으로 옮겼던 안의와 손홍록 등 많은 선비들이 학문을 닦았던 도장이다. 1685년(숙종 11년) 남고서원으로 사액 받았다.

면과 서원 관계자는 "예절학교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돕고 선조들의 슬기와 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전통예절과 문화의 소중함을 배우고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축
개
원

제8대 장수군의의회는 군민을 위해 열린의정을 펼치겠습니다.

방화동자연휴양림

장수군의의회
http://council.jangsu.go.kr